(725)

주체 105 (2016) 12

차 례

표지: 명제품생산자의 긍지를 안고 (푸른하늘련합회사에서) **사진 리학명**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류경안과종합병원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10월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에 떠받들리워 류경안과종합병원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인민의 병원, 후대들에게 물려줄 손색이 없는 병원으로 희한하게 일떠섰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 10월 새로 건설된 류경안과종합병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적인 안과전문병원으로 훌륭히 일떠선 류경안과종합병원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병원이 희한하게 건설되였다고, 외형만 보고서도 안과전문병원이라는것이 알린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의 외래병동과 입원실병동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과 설비들의 기술적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류경안과종합병원에 꾸려놓은 안경상점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원이 눈치료를 하는 전문병원이면서도 안경봉사까지 해주는 다기능적이며 종합적인 의료기지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안경상점을 훌륭히 꾸려놓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의 의료일군들과 봉사자들, 종업원들이 책임성과 실무적자질을 부단히 높여 의료봉사활동을 잘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병원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으며 해당 단위에서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는 여러가지 형태의 안경테를 생산하는 현대적인 기술공정을 꾸릴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류경안과종합병원은 병원다운 병원, 세계적수준의 병원, 모든것이 마음에 드는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인민의 병원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을 위해 꼭 하고싶었던 일을 해놓았다고, 인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해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류경안과종합병원의 의료일군들과 봉사자들, 종업원들은 그이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글 김태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주체105(2016)년 6월

승리와 영광의 해-2016년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는 격동적인 사변들과 경이적인 성과들로 충만된 주체105(2016)년이 저물어가고있다.

올해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고 세계정치사와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특기할 뚜렷한 자욱을 새기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완성을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가고있는 공화국의 무궁무진한 정치사상적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평양시와 각도에서 진행된 군민경축대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경축 청년전위들의 홰불야회 등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천만군민의 환희와 격정과 함께 조선이야말로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며 군대와 인민, 청년들은 오직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로동당의 기치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이라는것을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신뢰심을 간직하고 로동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현하는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 백옥같은 충정, 백두의 넋과 정기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혁명의 한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 해나가는 뜨거운 동지애, 고난도 시련도 함께 헤치며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해나가는 불굴의 기상이 온 나라에 차넘쳤다.

이 일심단결의 대진군이 올해의 경제강국건설에서도 커다란 비약과 혁신을 안아왔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충정의 70일전투에 노도같이 떨쳐나선 온 나라 근로자들의 높은 애국적열의에 의하여 전국적인 공업생산계획이 144%로 넘쳐 수행됨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공업생산이 1.6배로 장성하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진로를 밝혀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진행된 올해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기 위한 충정의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들은 일터와 건설장마다에서 또다시 눈부신 로력적위훈을 창조해나갔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부문에서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에 의거한 혁신적인 투쟁으로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하였으며 인민경제 선행부문에 발맞추어 건재, 화학, 기계공업, 경공업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들에서도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올랐다.

지난 8월말과 9월초 류례없는 돌풍과 무더기비로 두만강연안에 위치한 함경북도의 6개 시, 군들이 혹심한 자연재해를 겪는 뜻밖의 난국이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조선로동당은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하여 수많은 인민군장병들과 건설자들이 피해지역을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천지개벽시킬 각오를 안고 이곳으로 달려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건설전투를 벌렸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건재공업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주체105(2016)년 5월

부문에서 높아진 생산과제를 훌륭히 수행하고 전력, 석탄, 금속공업부문들에서도 최단기간에 필요한 전기와 석탄, 철강재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였으며 철도운수부문에서는 피해지역의 철길들을 신속히 복구하고 물동들을 제때에 실어날랐다.

농업,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도 식량과 소비품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물자들을 원만히 생산하여 보내주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발을 수여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8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치를 받들려는 온 나라 천만 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어 북부피해지구에서는 전화위복의 새 기적이 창조되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또다시 온 강산을 진감시켰다.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3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필승의 기상과 전투적위용을 힘있게 떨쳐나갈 신념과 의지가 과시된 청년전위들의 홰불야회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올해에도 문명과 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갈 리상을 안고 줄기차게 노력하여 1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아침과 저녁,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변모되는 조국의 새 모습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무수히 일떠세웠다.

육아원, 애육원과 초등 및 중등학원 등 로동당의 후대관, 미래관이 응축된 건축물들이 각도에 일떠서고 평양시와 전국도처에 현대적인 인민생활향상기지,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새로 꾸려졌으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의 성공적발사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성과들,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 체육성과들과 교육 및 문학예술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올해에 조선인민군장병들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의 가증되는 전쟁도발책동을 가차없이 짓부셔버렸으며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최첨단무장장비들의 시험에서 완전성공하는 특대사변들을 련이어 일으켜 선군조선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발사,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가 성공한것을 비롯하여 국방공업부문에서 획기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과학기술전당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1월

무진막강한 국력을 과시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굳건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그 어떤 외세의 압력과 공갈에도 끄떡하지 않고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의 제재, 고립압살소동을 자강력의 무한대한 힘으로 쳐갈기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만 줄기차게 나아가는 공화국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국제적지지와 련대성의 목소리가 더욱 높이 울렸다.

커다란 궁지와 자부심에 넘쳐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는 조선의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진두에서 이끄시기에 앞날은 더욱 밝다는 승리의 신심안고 희망찬 새해를 힘차게 마중가고있다.

글 최광호

과학기술전당

경제강국건설에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의 성공적발사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성과들이 이룩되고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에 의거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완공

홍건도간석지 1단계건설 성과적으로 결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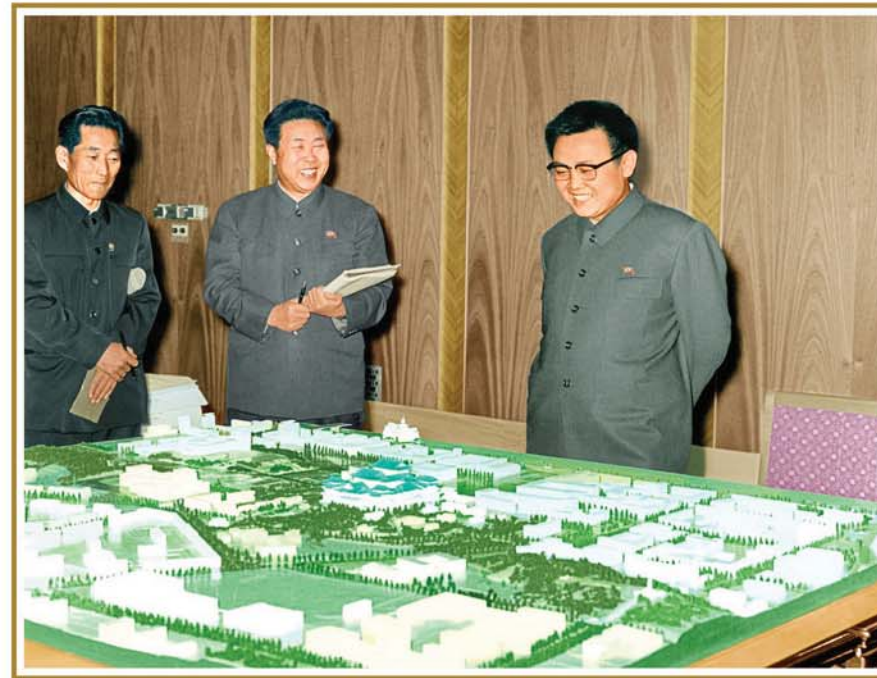
전국각지에 원아들의 행복의 요람인 육아원, 애육원과 초등 및 중등학원들이 건설되고 학생소년들을 위한 야영소들이 훌륭히 꾸려졌다.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와 조선예술영화 《우리 집 이야기》 등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들이 창작되였다.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된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

자연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정서기지들이 일떠섰다.

체육선수들은 수많은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하여 조국의 영예를 떨치였다.

비날론솜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2월

인민대학습당모형사판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8(1979)년 12월

유치원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줄 선물옷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1(1992)년 4월

서흥군 범안협동농장 농장원의 가정을 방문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0(2001)년 7월

전방지휘소에 오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6(1997)년 4월

애국헌신의 한생

있어서는 아니될 주체100(2011)년 12월 17일, 지구가 깨지고 땅이 꺼지는듯 한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한 온 나라 인민이 몸부림치던 그날로부터 다섯해가 흘렀다.

하지만 달이 가고 해가 가도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지니시고 애국헌신으로 혁명생애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절세의 애국자로 영생하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조선을 빛내이실 원대한 포부를 안으시고 장구한 기간 조선로동당과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반만년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민족번영의 대전성기를 안아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가장 친근한 동지, 가장 충직한 전우가 되시여 혁명과 건설을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줄기차게 전진시켜오시였다.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하늘처럼 믿고 살던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민족최대의 국상,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와 혹심한 자연재해로 하여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지난세기 90년대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시고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으며 조국을 일심단결된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그 어떤 원쑤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그 나날에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조국보위의 핵심력량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파도사나운 배길을 헤치시고 험준한 철령과 오성산의 칼벼랑길을 수없이 넘으시며 인민군부대들과 초소들을 찾고찾으시여 인민군군인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키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전인민적총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여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였다.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 혁명적경제건설로선과 농업혁명방침, 새 세기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한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8(2009)년 12월

새형의 CNC공작기계들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12월

산업혁명과 CNC화 등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로를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으시며 거창한 전변의 새시대를 펼쳐놓으시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여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신 위대한 장군님.

열화같은 사랑과 정으로 조국과 인민을 뜨겁게 품어안으시고 한생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생애의 전기간 지구둘레를 근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연 167만 4 610여리의 강행군길을 걷고걸으시며 전국의 1만 4 296개의 단위들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놓아오신 선군장정의 길, 조국번영의 길, 인민사랑의 길이 있어 조선은 핵보유국으로,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서 나라의 국력을 만방에 떨치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억센 토대가 마련되고 인민의 존엄과 긍지는 최상의 경지에 오르게 되였다.

하기에 오늘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그이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글 김태현

주체철, 주체비날론, 주체비료의 생산토대가 확립되고 조국의 토지가 사회주의 땅답게 변모되였으며 도시와 농촌 그 어디에나 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량강도 삼지연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높이 모시였다.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

그리움속에 5년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살아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뜻밖에 잃은 주체100(2011)년 12월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다섯해는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온 충정의 나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사상과 뜻대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은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안고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훌륭히 꾸리였으며 수도 평양과 각도 소재지들을 비롯한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장군님의 성스러운 선군혁명령도사가 변함없이 흐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끌어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이어갈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관철해나갔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요 전구들마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 인민생활향상의 토대를 굳게 다져나감으로써 어버이장군님께서 뿌려놓으신 만복의 씨앗들이 알찬 열매가 되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선군장정의 길에서 억세게 다져주신 강위력한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지고다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고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가는 천만군민의 힘찬 진군과 더불어 어버이장군님의 혁명력사는 끝없이 흐르고있다.

글 김현희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은 날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더해만 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를 돌이켜보는 근로자들

그 사랑, 그 은정 잊을수 없습니다

개선청년공원관리소 지배인 김혁

해마다 12월이 오면 우리 개선청년공원관리소 종업원들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나날에 인민의 행복을 위해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찾으신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안겨와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 인민들이 뜻밖의 비보에 접한 그날로부터 10여일전인 주체100(2011)년 12월 4일에 어버이장군님께서 우리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현지지도하시였습니다.

날씨가 여간 춥지 않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희장을 돌아보시며 운영실태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시였습니다.

주체99(2010)년 4월 새로 개건되였을 때에도 현지에 나오시여 유희시설들의 가동상태와 안전성에 대하여 세심히 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을 또다시 모신 그날 일군들은 맵짠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유희시설들을 리용하는 인민들의 기쁨을 헤아려보시는 그이의 숭고한 인민관에 격정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희장의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서 유희기구를 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들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까지 물어주시였습니다.

일군들이 유희기구를 타지 않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손에 땀을 쥐고 함께 웃고 떠들며 소리치는것이 불만하다고 말씀올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럴거라고 하시면서 못내 만족해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유희시설들은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는 대담성과 용감성을 키워주고 나이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의 희열을 안겨주는 훌륭한 설비들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 와서 유희시설들을 타고 희한하게 불장식을 한 야경도 구경하면서 좋아한다니 내 마음도 즐겁다고 하시였습니다.

인민의 행복을 제일가는 락으로 여기시는 어버이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은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우리 개선청년공원관리소 종업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서 언제나 행복넘친 인민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주체38(1949)년 3월

인민정권건설로선을 받드시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나라가 해방(1945. 8. 15.)된 후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로선을 받드시고 인민정권을 옹위하며 그 강화발전을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어느날 당시 평양제4녀자중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수립과 관련한 강연회가 반동들의 준동에 의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사실을 아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참다운 인민정권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대중속에 깊이 심어주시기 위해 그곳에서 다시 강연회를 조직하시고 직접 출연하시였다.

강연회장으로 나오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인민대중속에 뿌리박은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는데 대하여, 반동들이 미친듯이 날뛰여도 정의를 지향하는 인민의 념원은 꺾을수 없으며 전진하는 력사의 수레바퀴는 변화시킬수 없다고 해설해주시면서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인민정권을 끝까지 사수하고 새 조국건설위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11월 첫 민주선거가 진행될 때에는 녀성들도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시였다.

력사적인 첫 민주선거의 날 녀맹일군들과 함께 평양시 중구역 중성선거구 52호분구선거장에 나가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투표를 하시고 나서 오늘 실시된 력사적인 첫 민주선거에서 수많은 녀성들이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립후보자로 추천되여 선거를 받게 된것은 우리 녀성들이 모든 인격적, 사회적예속과 차별에서 벗어나 사회정치생활에서 주인이 되였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장군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건국사업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리자고 호소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은 공화국의 새 헌법초안 작성과 국장 및 국기를 제정하는 사업에도 깃들어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당부문 일군을 여러차례 만나시여 수령님께서 공화국국기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운 투사들이 흘린 붉은 피와 우리 당의 두리에 뭉친 혁명력량을 상징하는 붉은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고 하시였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빛나는 혁명전통과 조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별을 국기와 국장에 넣는 문제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국장도안을 완성하는 사업에서도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기화를 반영해야겠다고 하실 때 발전소를 그려넣으면 전기화를 표현할수 있을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려 수령님께 만족을 드리시였다.

이처럼 새 조국건설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정권건설로선을 받드시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업적은 세기를 이어가며 찬연히 빛나고있다.

12월 24일은 김정숙동지의 탄생 99돐이 되는 날이다.

글 강수정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함께 계시며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대를 이어 누리는 최고사령관복을 더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하는 12월이 왔다.

일찌기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걸어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0(1991)년 12월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시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인민군대를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져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끊임없는 선군장정을 이어가시며 인민군대를 불패의 전투력을 지닌 최정예전투대오로 키우시고 조선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조선인민군은 수령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하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결사관철하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만능의 군사전법과 백승의 경험을 소유하고 그 어떤 현대전에도 대처할수 있는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진막강한 일당백강군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수령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락천적인 문화정서생활기풍

위대한 장군님께서 걷고걸으신 선군의 길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일찌기 총대와 깊은 인연을 맺으시고 10대에 벌써 령장의 뛰여난 군사적 예지와 자질을 보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장 친근한 선군혁명동지가 되시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심으로써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신뢰를 받아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인민군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에 함께 계시면서 그이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드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받드는것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0(2011)년 12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중임을 지니시고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밝혀주시였으며 인민군대를 당의 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당의 4대강군화로선을 틀어쥐고 당에서 제시한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인민군장병들을 사상과 신념의 최강자로 키우도록 하시였다.

위험천만한 최전방들과 포연이 자욱한 전투훈련장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를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군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졌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조선은 강위력한 핵보유국으로,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며 새로운 비약과 번영의 만리마시대를 펼쳐나가고있는것이다.

글 최광호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도 단호히 짓부셔버릴수 있게 준비된 혁명적무장력

지난 8월말 9월초 조선의 북변땅에는 해방(1945. 8. 15.)후 기상관측이래 처음보는 돌풍이 불어치고 무더기비가 쏟아져 수많은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무너지고 철길, 도로를 비롯한 교통망과 전력공급계통, 공장, 기업소, 농경지들이 파괴, 류실되였다.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된 북변땅 -

지난 8월말부터 9월초사이에 전대미문의 대재앙이 휩쓸었던 함경북도의 두만강지구에 세인을 놀래우는 전화위복의 기적이 일어났다.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호소따라 전인민적으로 전개된 2개월간의 격전끝에 사회주의 새 거리, 새 마을들이 번듯하게 솟아난것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진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힘차게 벌어지고있던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전환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선차적인 건설대상으로 정해주시고 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 총집중하도록 하시였다.

려명거리건설을 비롯하여 200일전투의 주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10여일만에 고무산청년역-무산역 철길 개통, 첫 렬차 통과

조선로동당의 은정속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행복한 야영생활을 하고있는 북부피해지역의 학생소년들

경흥군에서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의 1만 1 900여세대의 살림집건설이 50여일만에 완공되였다.

전역들에 전개되였던 주력부대들을 비롯한 온 나라의 건설력량이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급파되였으며 필요한 기계수단들이 신속히 전개되여 살림집건설에 집중되였다.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기 위해 치렬한 전투를 벌려온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살림집기초공사와 골조공사, 건축공사가 립체적으로 벌어져 세상에 둘도 없는 건설기적이 창조되였다.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두달도 안되는 기간에 근 97만m^3의 기초굴착, 17만여m^3의 기초콩크리트치기, 29만여m^3의 벽체축조와 10만여m^3의 층막콩크리트치기, 600여만m^2의 내외부미장, 20여만m^2의 타일붙이기, 60여만m^2의 외장재칠하기 등 방대한 공사가 훌륭히 완성되였다.

경흥군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인민군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이 지난 10월말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살림집완공의 첫 승전포성을 자랑스럽게 울린데 이어 11월 11일까지 회령시, 경원군을 비롯한 북부전역에서 1만 1 900여세대의 살림집건설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하여 북방의 설한풍과 폭우에도 끄떡없는 새 집들이 일떠섬으로써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보금자리를 펴게 되였으며 새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들에서 배움의 종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지게 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리광성, 고승혁
글 최광호

탁아소, 유치원, 학교, 진료소들도 건설되였다.

건설된 살림집들의 일부

회령시에서

무산군에서

온성군에서

연사군에서

경원군에서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들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책은 온 나라에 첨단기술개발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년간 수십만대의 전자제품생산능력을 가진 푸른하늘련합회사에서는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성능이 높은 여러가지 전자제품들을 개발생산하고있다.

지난해 5월에 조업한 회사는 1년 남짓한 기간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전자제품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할수 있는 완벽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회사에는 기판제작흐름선과 전자제품조립흐름선, 로화흐름선, 검사선, 포장선으로 이루어진 생산공정들이 꾸려져 제품들의 기판설계와 제작, 조립, 완성까지 하고있다.

표면부착기술(SMT)흐름선들과 구멍관통요소삽입기술(THT)조립흐름선들로 이루어진 기판생산공정들에서는 높은 품질이 보장된 각종 전자제품기판들이 생산된다.

전자제품조립흐름선에는 자동흐름선 PLC조종체계와 자동수평수직승강체계를 도입하였다.

회사에서는 경영전략과 연구개발도 자체의 력량으로 하고있다.

체계적인 수재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젊고 패기있는 20대, 30대의 인재들로 꾸려진 회사의 경영진과 연구개발집단에 의하여 로화프로그람과 검사프로그람 등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프로그람들과 통합생산체계가 개발도입되였으며 성능이 높으면서도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전자제품들이 설계제작되고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산한 전자제품들이 내 나라의 푸른 하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명제품, 누구나 사랑하는 전자제품이 되게 하려는 마음에서 상표도 《푸른하늘》이라고 하였다.

일체식콤퓨터, 분리식콤퓨터를 비롯하여 오늘 회사에서 생산하는 각종 다기능콤퓨터들과 여러가지 크기의 상사 및 수자식레드(LED)텔레비죤, USB기억기 등 다양한 《푸른하늘》전자제품들은 어디서나 호평을 받고있다.

사진, 글 김윤혁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확립되여

과수와 축산, 축산과 과수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확립되여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돼지공장에서는 해마다 생산을 늘이고있다.

흰구름이 내려앉은듯 하얀 사과꽃바다를 펼쳐놓아 선군11경을 노래하던 평양시 삼석구역 원흥지구가 오늘은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과수바다와 함께 돼지고기생산활성화의 밝은 전망을 자랑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전하며 규모있게 쭉쭉 뻗은 대동강과수종합농장 과수밭의 과일나무가지마다에 탐스러운 사과알들이 포도송이처럼 주렁져 정말 땅이 꺼지는듯싶다.

지게차들과 과일운반용화물자동차들이 만가동의 동음을 울리며 쉴새없이 오가는 광경도 참으로 이채롭다.

이 모든것은 이곳에 과수와 축산, 축산과 과수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확립되여 이룩된 결실이다.

사과밭가운데 자리잡은 대동강돼지공장은 주체100(2011)년에 건설되였다.

축산물생산의 과학화, 정보화, 자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공장에서는 사과부산물을 비롯한 비알곡먹이에 의한 돼지사육을 진행하여 알곡먹이소비기준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고기생산을 훨씬 늘이고있다.

공장에서는 돼지고기와 함께 맛좋고 영양가 높은 10여가지의 고기가공품들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봉사해주고있다. 뿐만아니라 돼지배설물을 리용하여 유기질복합비료를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설비들도 그쯘히 갖추어놓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유기질복합비료를 원만히 보내주고있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는 과수밭들에 대동강돼지공장에서 생산한 유기질복합비료를 내여 지력을 높이고 과일대풍을 이룩하였다.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여 과일대풍을 안아오고 고기생산활성화의 전망도 열어놓은 원흥땅의 경험은 온 나라에 일반화되고 있다.

사진, 글 진영호

중앙동물원을 찾아서

경치아름다운 대성산기슭에 자리잡은 중앙동물원이 지난 7월 전변의 새 모습을 펼치였다.

백두산호랑이를 형상한 덩지 큰 본관이며 멀리에서 보아도 어떤 동물사인지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독특하게 시공된 파충관, 개관, 조류관을 비롯하여 8개의 동물관과 37개의 동물사들이 주변경치에 어울리게 현대적으로 일떠서 말그대로 천지개벽되였다.

100여정보의 넓은 부지면적을 차지하고있는 동물원에는 비단새와 같은 작은 새와 물고기로부터 곰이나 서우, 코끼리 등 큰 동물에 이르기까지 세계5대륙의 희귀한 동물들이 보금자리를 펴고 살고있는데 그 수는 760여종에 9 000여마리나 된다.

시원하게 쭉쭉 뻗어간 참관도로를 따라 동물원구획에 대한 안내표식판들이 서있고 휴식장소들이 특색있게 꾸려져있으며 수만여그루의 여러가지 꽃관목들과 나무들이 새로 심어져 동물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마치도 동화세계에 온듯 한 감을 준다.

어디부터 먼저 갈가, 무엇부터 먼저 볼가.

이런 즐거운 이야기속에 사람들의 물결이 먼저 흘러드는 곳은 수족관이다.

수족관은 내부의 벽과 바닥이 시원한 푸른색을 띠고있어 들어서면 마치도 바다세계에 온것 같은 느낌을 준다.

여기에서는 《아마조나스강의 대식가》로 알려져있는 피라니아와 몸에 있는 무늬가 마치 지도를 형상한것처럼 보이는 지도고기, 금색송어, 푸른바다거부기를 비롯한 진귀한 바다물고기와 민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염치고있다.

무더위를 잊게 하는 수족관을 나서면 물범, 물개들의 재주장이 참관자들을 반겨맞는다.

이곳에서 물개와 물범들은 경쾌한 선률에 맞춰 공과 륜을 리용한 각종 재주들을 척척 수행하여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웃음꽃을 한껏 피워준다.

조교사들이 공중으로 던지는 륜을 어렵지 않게 받아 꼬리에 걸고 던진 물건을 정확히 찾아오는 물범들을 보면서 관람석에서는 즐거운 웃음과 함께 요란한 박수가 터져오른다.

롱구륜에 공넣기, 공중에 매달린 공을 치고 련이어 륜꿰지르기 등 여러가지 기묘한 물개재주도 사람들의 절찬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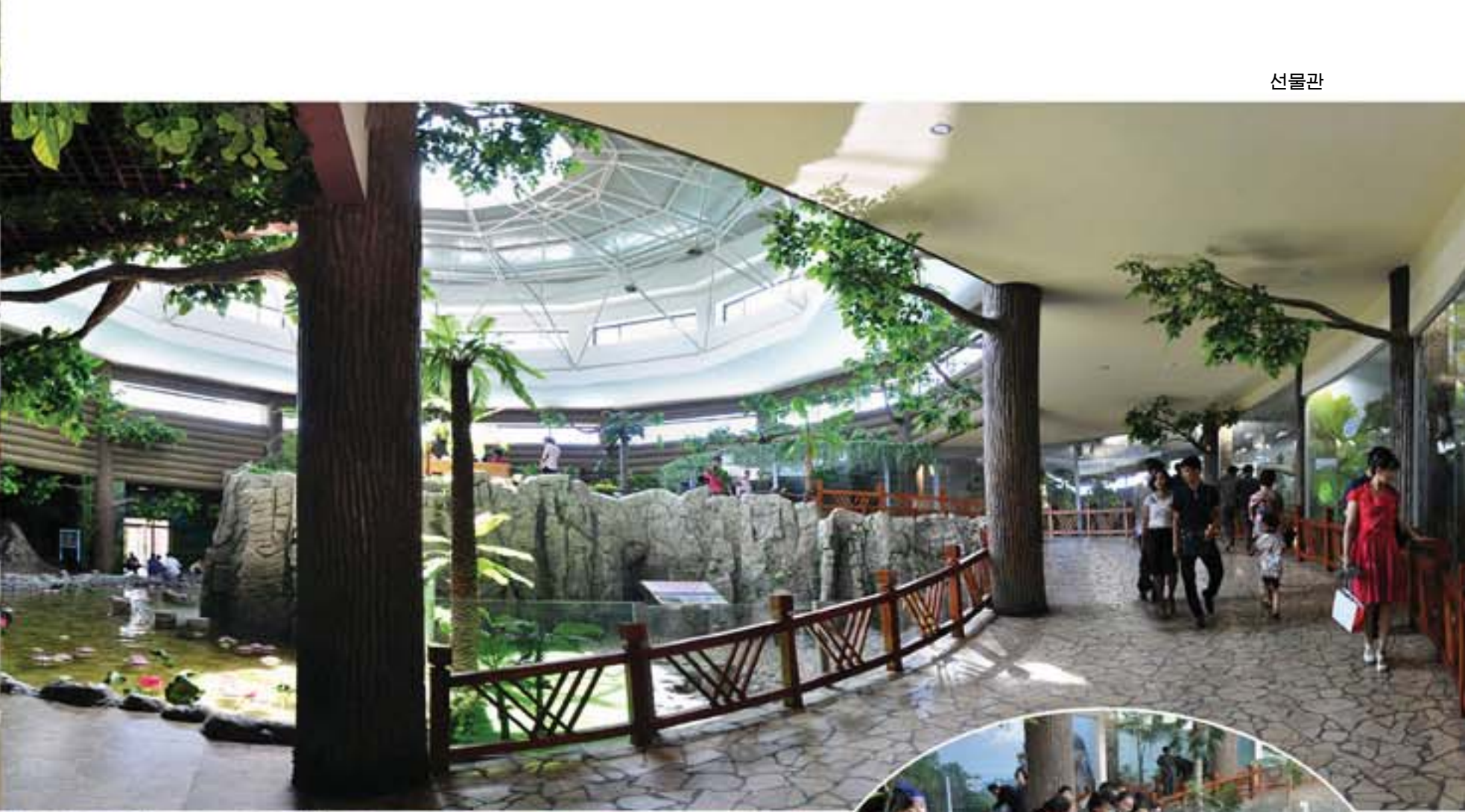
참관자들의 웃음은 커다란 거부기를 형상한 파충관에서도 즐겁게 울려나온다. 특색있게 건설된 파충관은 계단과 란간, 전경판과 조명에 이르기까지 내부구조와 환경이 오랜 세월을 거쳐온 동물들의 진화과정과 생태환경에 맞게 과학적으로 실용성있게 꾸려져있다.

파충관에는 바다악어, 아프리카금사를 비롯하여 해살땅거부기, 그물무늬금사, 소개구리 등 희귀한 파충류들이 종류별로 나뉘여져있고 휴식홀마다에는 파충류의 진화발전과 생태적특성, 번식에 대한 상식자료들을 친절하게 소개한 전시판들이 있다.

땅과 바다, 하늘에서 사는 진귀한 동물들을 한눈에 볼수 있고 동물들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혀줄수 있게 조류관, 개관, 맹수사를 비롯한 모든 동물관과 동물사들도 과학성과 실용성, 친절성에 있어서 높은 수준에서 꾸려져있다.

새의 깃이 알을 품고있는것을 형상한 은빛색의 거대한 원형유리건물로 이루어진 조류관에는 온대, 아열대, 열대에서 사는 다양한 새들이 보금자리를 폈으며 개발통모양으로 독특하게 건설된 개관에서는 길다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선물관

란 복도와 관람홀들을 통하여 조선의 국견인 풍산개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개들을 한눈에 볼수 있다.

코끼리사에서는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코끼리가 연방 인사를 하는 즐거운 모습이 웃음속에 펼쳐지고 동물원구내에서는 관람차와 꽃마차들이 달리는 소리가 행복의 노래소리마냥 울리고있다.

황홀하게 펼쳐진 동물원의 새 모습은 인민들에게 안겨줄 새 문명, 천가지만가지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려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해 마련된것이다.

그 사랑속에 인민의 기쁨이 넘쳐나고있다.

사진 김윤혁 글 김선경

거부기를 형상한 파충관

조선의 국조 참매

평양상공을 날으며

평양시 교외의 미림지구에 미림항공구락부가 새로 꾸려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이곳에서는 조선의 자력자강의 산물인 관광용 초경량비행기에 손님들을 태우고 평양시의 하늘을 날며 즐거운 관광비행봉사를 해주고있다.

매해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진행하는 관광비행에는 고정된 비행항로에 의한 관광비행과 주문자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하는 주문관광비행이 있다.

하늘을 날으는 비행기를 형상한 항공구락부에서는 관광비행의 편의를 보장해주고있다.

대기실, 옷보관실 등이 있는 1층에서 손님들은 운동복과 비행모자를 봉사받은 다음 비행장으로 나가도록 되여있다.

2층과 3층에는 식사실들이 있어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즉석음식들과 여러가지 료리들, 청량음료들을 봉사하는데 3층식사실에서는 비행장에서 리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다.

비행장에 서면 누구나 남먼저 비행기를 타고싶은 승벽심이 절로 난다.

대지를 박차고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면 손님들은 기쁨의 환성을 터친다.

5월1일경기장, 옥류교, 주체사상탑,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두루도까지 비행한 다음 다시 대동강을 따라 올라오면서 그림처럼 아름다운 평양시를 부감하게 되는 승객들의 쾌감은 절정을 이룬다.

땅에 내려서도 마음은 아직도 하늘에 있는듯 관광비행의 감정들을 나누느라 여념이 없다.

항공구락부에서는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면서 하늘을 날고싶어하는 손님들을 위한 특색있는 봉사도 하고있다.

손님들은 먼저 지상에 있는 련습기에서 비행기조종에 대하여 배우고 거기에 충분히 숙련된 다음 비행기를 타게 된다.

이때 비행사들이 뒤좌석에 앉아 손님들의 비행조종을 도와준다.

관광비행의 환희와 격정이 차넘치는 이곳에 야외관람대와 휴식장소들도 곳곳에 꾸려져있어 사람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관광비행은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고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하기에 이곳을 찾았던 손님들은 감상록에 이런 글들을 남기였다.

《하늘비행이 최고이다.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날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누리는 우리의 행복의 높이, 문명의 높이를 보았다.》

《하늘길을 따라 행복의 래일을 제일먼저 마중가는듯 싶었다.》

《멋있고 황홀하다는 말로는 이 멋진 광경, 이 멋진 현실을 표현하기가 정말 힘들다. 아름다운 우리 조국, 우리 평양을 더 잘 꾸리기 위해, 더욱 빛내이기 위해 지혜와 열정, 땀을 아낌없이 바치겠다.》

…

미림항공구락부로는 조선인민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의 관광객들도 찾아오고있다.

사진 김설희 글 김선경

산촌의 작은 교정

평안남도 덕천시에 있는 산천경개 수려한 금성호반의 사슴골이라고 부르는 양지바른 곳에 지난 4월 5명을 위한 분교가 새로 들어앉아 산골동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덕천시 삼탄소학교 사슴골분교로 불리우는 이 아담한 교정은 시안의 소학교들과 수십리 떨어진 산골마을 아이들을 위해 일떠선것이다.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교육정책과 인민적시책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시안의 일군들은 교사도 새로 건설하고 교육조건과 환경도 훌륭히 갖추어주었으며 도로도 번듯하게 닦아놓았다.

기관, 기업소들과 많은 근로자들도 교육사업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책상과 의자, 교구비품들은 물론 교육교양에 필요한 박제품들과 교편물들을 마련하여 분교에 기증하였다.

덕천시 은덕동 93인민반에 살고있는 윤철명가정에서는 나어린 학생들을 위해 도로도 닦아주고 박제품과 운동기재들을 비롯하여 교육교양에 필요한 많은 교육기재들을 적극 후원하였다.

도시에서 교원생활을 하던 처녀교원이 이곳 교원으로 자원하여 왔다.

하여 외진산골에 있는 자그마한 분교의 5명의 아이들이지만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고있으며 나라에서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공급한 새 교복과 교과서, 학용품들도 똑같이 받아안고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쳐가고있다.

교정은 크지 않지만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뜨겁게 어려있어 산골분교에서는 배움의 종소리가 언제나 높이 울리고있다.

사진 리광성 글 박병훈

제15차 국제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한 조선선수들

주체104(2015)년에 진행한 국제장애자의 날에 즈음한 예술공연중에서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여 공연도 하고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장애자들의 보호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하고있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의 일군들

조선에서는 장애자보호사업이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쳐가는 조선로동당의 인덕정치에 의하여 국가적인 사업으로, 사회적관심속에서 진행되고있다.

장애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이 사회정치적권리와 자유를 건강한 공민들과 꼭같이 보장받으며 값높고 행복한 삶을 누려가도록 하는 장애자보호사업에서 조선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장애자들의 모든 권리와 리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것을 자기 사명으로 하고있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의 임무에 맞게 중앙위원회는 산하에 도위원회들과 시, 군의 장애자사업담당일군들 그리고 조선롱인협회, 조선맹인협회, 조선손말통역원협회, 조선장애자예술협회, 조선장애자체육협회, 녀성장애자협회 등을 두고 장애자들의 생활과 건강을 돌보아주고있다.

장애자들의 회복치료뿐아니라 회복치료용 교정기구와 설비들을 보장하는 사업은 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의 기본임무의 하나로 되고있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지원활동과 옹호활동, 출판선전활동을 적극 벌려 장애자들의 정신육체적기능회복과 무장애환경의 수립, 장애방지와 장애자들의 사회적지위보장에 이바지하고있다.

해마다 6월의 장애자의 날과 12월의 국제장애자의 날에는 장애자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도 조직하고있다.

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는 국제기구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장애자보호사업과 관련한 협조와 교류사업도 활발히 벌리고있다.

장애자들의 참된 보호자가 되여 국가의 장애자보호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 일군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장애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는데 이바지되고있다.

장애자들은 누구나 소질과 취미, 건강과 희망에 맞게 생활하면서 사회와 집단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가고있다.

많은 장애자들이 국제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체육경기들에도 출전하고있으며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여 공연무대도 펼치면서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다.

그와 함께 장애자들에게 보다 큰 복리를 안겨주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누려가도록 하려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 일군들의 사명감도 높아지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김정

롱아들에 대한 손말조기양성

장애자들에 대한 다양한 체육 및 문화활동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대회가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인도주의적활동의 7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가 창립되여 어느덧 일흔번째 년륜을 새기였다.

해방(1945. 8. 15.)직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주체35(1946)년 10월 18일에 창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는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뜻하지 않은 일로 재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하는것을 비롯한 여러가지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진행하여왔다.

적십자회는 자기의 임무에 맞게 적십자회조직의 확대강화와 평화적민주주의건설시기 사회의료봉사 및 재난구호활동,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시기 전시구호 및 방역활동, 재일동포들의 귀국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나라의 분렬로 인한 겨레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려온것을 비롯하여 지나온 년대기들마다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적십자회는 여러 나라 적십자단체들과의 협조를 강화하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한 사업도 적극 벌려왔다.

오늘 적십자회는 재난관리활동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보건 및 구급처치활동과 청소년적십자활동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주체103(2014)년부터 적십자회는 계획작성 및 계획집행능력제고, 주민지역보호를 위한 재해위험감소활동 진행, 보건 및 물위생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 복리증진을 기본활동내용으로 하고있는 주민지역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주민지역들에서 자체로 발전할수 있는 자강력을 발휘하도록 하는것을 이 사업의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나가고있다.

결과 평안남도 양덕군 동양리를 비롯하여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의 확정된 지역들에서 주민지역종합발전관리위원회가 나오고 주민지역종합발전계획이 적극적으로 리행되여 본보기로 꾸려지고있다.

적십자회는 지난 8월말과 9월초 돌풍과 무더기비로 혹심한 자연재해를 입은 함북도 북부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긴급대응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재난을 가시기 위한 사업에 총집중하였다.

올해 창립 70돐을 맞는 적십자회는 지난 10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대회를 진행하였다.

대회에서는 2020년까지의 전략계획과 예산을 심의토의하였으며 새 지도기관성원들이 선거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창립 70돐 기념모임에서는 적십자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지부일군 및 자원봉사자들, 청소년적십자회원들에 대한 소개와 시상, 대동맹학교 학생들과 청소년적십자회원들의 예술소품공연 등이 진행되였다.

사진 홍태웅 글 강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창립 70돐 기념모임과 사진 및 도서전시회, 학생소년들의 예술소품공연도 있었다.

통일자전거행진 진행

력사적인 10. 4선언발표 9돐에 즈음하여 지난 10월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이 진행되였다.

통일자전거행진 출정식이 평양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과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출정식에 참가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인 최수봉 공동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단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출정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이번 통일자전거행진이 통일대회합을 성사시켜 외세에 의해 강요당하고있는 분렬의 력사를 하루빨리 끝장내야 하는 민족적, 시대적사명감을 온 겨레에게 다시금 새겨주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데 대한 공화국의 제안은 겨레의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고 하면서 연설자들은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민족의 탁월한 령수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였기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은 이 땅우에 반드시 일떠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군중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평양을 출발한 행진단은 여러 지역을 통과하여 개성에 도착하였다.

개성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판문점에 들어선 행진단은 판문각앞마당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결의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판문점에 세워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필비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은 다음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표되였다.

력사적인 10. 4선언발표 9돐을 맞으며 진행된 통일자전거행진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조국통일3대헌장과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높이 들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조선민족의 드팀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로 되였다.

사진 김윤철 글 김현

친선과 우의를 두터이 한 체육경기

지난 10월 평양의 릉라인민체육공원에서 주조외교단 체육경기가 있었다. 여기에는 조선의 외교부문 일군들과 주조대사관성원들, 가족들이 참가하였다. 여러 팀들간의 축구, 배구, 롱구경기들과 청팀, 홍팀으로 나뉘여진 다채로운 체육유희오락경기들이 진행되였다.

체육경기가 끝난 후 시상과 나라별 민족음식품평회가 있었다.

사진 홍광남

원시, 고대시기 유적유물 발굴

조선동해안의 최북단인 라선시 선봉지구 웅상동에서 최근 원시, 고대시기의 유적유물들이 새로 발굴되였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라선시 민족유산보호부문의 일군들을 비롯한 연구집단은 선봉지구에 대한 유적발굴과 연구사업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원시시대의 바위그늘유적과 고대시기의 고인돌무덤 2기, 살림집터 1개를 발굴하고 1 000여점의 유물들을 찾아냈다.

기묘한 바위돌들이 지붕을 이루고있는 바위그늘유적은 바다기슭의 양지바른 경사지에 자리잡고있는데 그곳에는 질그릇을 비롯하여 원시시대 사람들의 생활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

눈비를 막을수 있는 지붕의 처마나 모자채양 모양의 바위그늘유적은 높이가 3m이고 면적이 80㎡로서 공화국북반부지역에서 처음으로 알려진 매우 희귀한 유적이다.

웅상동유적에서는 2기의 고인돌무덤(석천산형고인돌무덤, 오덕형고인돌무덤)도 발견되였다.

석천산형고인돌무덤은 길이 120㎝, 너비 84㎝, 깊이 60㎝의 크기로 땅을 파서 주검칸을 만들고 그우에 길이 302㎝, 너비 228㎝, 두께 62㎝인 큰 뚜껑돌을, 오덕형고인돌무덤은 높이 100㎝정도인 2개의 고임돌우에 길이 180㎝, 너비 140㎝, 두께 60㎝인 뚜껑돌을 덮은 무덤이다.

고인돌무덤들안에서는 석기반제품들과 갈색민그릇을 비롯한 유물들이 나왔다.

지금까지 석천산형고인돌무덤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일대에만 분포되여있는것으로 인정되여왔으며 오덕형고인돌무덤은 함경북도 어랑군 이북지역에서는 전혀 찾아볼수 없었다.

조선동해안의 최북단인 라선시지역에서 석천산형고인돌무덤과 오덕형고인돌무덤이 처음으로 발견됨으로써 이 지역에 미친 평양지방 고대문화의 영향과 단군조선의 강성기 령역을 해명할수 있는 과학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특히 새로운 형식의 고대살림집터유적이 학계의 이목을 끌고있다.

일정한 깊이로 땅을 파고 벽가장자리를 따라가며 기둥을 세우고 웃설미를 마련한것이 보편적이였던 집자리유적들과 달리 웅상동유적에서 발견된 고대살림집터는 바위돌들을 리용하여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를 건 다음 지붕을 씌웠던것인데 구조짜임새가 매우 견고한것으로서 처음 보는것이다.

집자리안에서는 수십개체분의 질그릇과 함께 취사터가 발견되였다.

이번에 발굴된 유적유물들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조선의 원시 및 고대문화의 주도적역할과 학계에서 공백으로 남아있던 동북조선일대 고대문화의 면모를 해명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충복

바위그늘유적

오덕형고인돌무덤

석천산형고인돌무덤

고대살림집터

낸곳 : © 조선화보사 2016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인쇄소 :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ISSN 1727 - 9224

편집 김일남 13606—681147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내 나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 //www.naenara. com. 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

뒤표지: 과학기술상징탑의 야경 사진 김주혁